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음 8월 22일) 제21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시군축제서 새만금잼버리 홍보

도, 김제 지평선·임실 N치즈축제 등서 홍보관 운영
수도권 지하철 역사 조명·페이스북 온라인 광고도

전북도는 도내 시군 축제와 주요 행사에서 잼버리 홍보관을 운영하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알리기에 나선다.

지난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에 개최되는 김제 지평선 축제(10월5일)를 시작으로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오토&레저쇼(10월5일), 임실 N치즈축제(10월6일), 제99회 전국체전(10월12일) 등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잼버리 홍보관을 운영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그린웨이 환경축제, 전라북도 귀농귀촌박람회, 과학축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 등 도내의 주요 행사에서 특색있는 잼버리 홍보관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그 바탕을 이어받아 홍보관 운영으로 찾는 이들에게 새만금 잼버리를 각인시킨

다는 방침이다.

홍보관은 잼버리 야영장 캠프의 텐트 설치와 스카우트 장구류 등을 전시하여 잼버리 현장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다크&로컬 이벤트, 잼버리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남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KTX객차 영상광고, 페이스북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여 도내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국 불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잼버리를 통해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2023년까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잼버리 성공개최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폭염 특수'... 8월 유통업체 매출액 전년비 6.5% ↑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가 폭염 특수를 봤다. 더운 날씨에 과일·빙과류 등 식품군과 계절가전 판매가 두드러졌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이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오프라인(2.9%)과 온라인(13.3%) 부문 매출이 모두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는 온라인판매(13.7%)와 온라인판매중개(13.2%)가 나란히 증가했다.

온라인판매는 여행·공연 등 서비스 부문(42.4%)의 지속적인 성장에 폭염 속 배송 서비스 개선으로 식품군(26.0%) 매출이 크게 성장한 영향이다.

온라인판매중개는 폭염으로 에어컨·선풍기 등 계절가전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전·전자 부문(14.8%, 비중 26.2%) 매출이 뛰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대형마트(-1.2%)를 제외하고 모두 매출이 늘었다.

편의점 매출이 점포 수 증가와 폭염에 따른 식품군 매출 성장에 힘입어 가장 큰 폭인 8.4% 증가했다. 점포당 매출액도 2.0% 늘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출은 4.6% 늘었다. 더운 날씨로 과일·빙과류의 수요가 늘면서 식품부문(6.2%, 비중 90.6%)의 매출이 증가한 결과다.

백화점은 매출 비중이 높은 식품군(4.4%, 비중 18.5%)과 가정용품 부문(9.2%, 비중 13.8%)의 성장으로 전체 매출이 2.4%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식품군 매출이 2.8% 늘었는데도 가정생활(-12.0%) 등 나머지 상품군 매출이 저조해 전체 매출이 1.2% 쪼그라들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운봉(雲峰) 승동표(1918~1996)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해 마련한 특별전이 지난 2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박물관 중앙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10월 31일까지 운봉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이날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승 화백의 차남인 승수군 선생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운봉 승동표 화백 탄생 100주년 '열정... 분단... 은둔... 그리고 희망...'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운봉(雲峰) 승동표(1918~1996)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해 마련한 특별전이 지난 2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박물관 중앙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10월 31일까지 운봉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수 전주

31일까지 특별전 열려
후기 인상주의 화풍 '주목'

시장, 승 화백의 차남인 승수군 선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승 화백 탄생 100주년 특별전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전은 '열정, 분단, 은둔

그리고 희망'이라는 부제를 달고 전북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승 화백은 우리나라에 100여 점을 비롯해 북한에 60여 점, 일본에 1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서양화 75점과 드로잉 33점, 국민훈장 목련장 등 유품 등 149점이 전북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승 화백의 자제인 승수군 선생 가족들에 의해 지난 2013년 전북대 박물관에 수탁됐다.

승 화백의 화풍은 폴 세잔(Paul Cezanne)과 같은 후기 인상주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렬한 색감과 붓 터치, 대상물의 간략화, 두껍고 견고한 외곽선 표현 등에서 후기 인상주의 화풍을 느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올해 자랑스러운 전북인은?

경제분야 조영호·체육 전영술·농림수산 신동화
나눔 최병철·근로 김연순씨 등 5명... 도, 수상자 선정

전북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제23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본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경제대상에 조영호 씨를 비롯, 체육대상에 전영술씨, 농림수산대상에 신동화씨, 나눔대상에 최병철씨, 근로대상에 김연순씨가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전북인을 찾아 시상하는 상으로 23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제, 체육, 나눔 분야 등 총 7개 분야 24명의 후보자들이 접수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현지조사와 두 번의 심사(예비심사, 본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5개 분야에서 1명씩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제분야 조영호, 체육분야 전영술, 농수산분야 신동화, 나눔분야 최병철, 근로분야 김연순

수상자에게는 오는 10월 18일 전라감영 부지 내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경제, 체육, 근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단 한분에게만 드리는 영예로운 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3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4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를 유혹하는 새만금 김제시

축! 전주매일 창간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축제인 지평선축제를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계인과 함께 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제시